

濟州島民俗의 精神醫學的 研究 展望

李 符 永 *

精神醫學者가 濟州島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60年代初 當時 서울 大學校 醫科大學附屬病院 精神科의 全國島嶼地方의 精神疾患의 疫學調查의 一環으로 筆者等이 濟州本島周邊, 特히 牛島와 馬羅島, 加波島에 대한 調查¹⁾를 실시한데서 비롯된다. 主要精神疾患의 頻度에는 陸地와 特別한 差異가 없었으나 特히 牛島에는 地下水없이 天然水를 食水로 하여 環境衛生이 좋지 않아 설사질환이 많았고 意外로 많은 病疾이 發見되었는데 漁村의 알콜中毒이 또한 많은 듯한 印象이었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 1) 金昌鏡, 李符永: 韓國農村(加波島, 馬羅島)에서의 主要精神疾患頻度調查, 明柱完博士 還曆紀念論文集, 서울大醫大神經精神科教室, 서울, 1965, pp.68-78.

그當時 筆者는 巫俗의 精神醫學의 研究를 시작하던 때였으므로 틈을 내어 모슬포와 濟州市의 神房들을 巫業者의 모임인 敬神會를 통하여 찾아보기도 했는데 당시는 濟州巫俗의 特徵도 잘 몰랐고 별로 큰 소득이 없었다. 當時 濟州島巫俗에 관해서는 濟州大學에 계시던 張籌根教授의 巫歌研究와 文化財管理局를 통하여 공판印刷로 세상에 나오게 된 玄容駿, 金榮敦氏등의 著에 관한 資料가 있을 程度였고 뒤에 秦聖麒氏의 濟州島神話集이 나오곤 하여 濟州島의 民俗이 조금씩 文獻으로 定着되기 시작했었다.

張籌根氏가 濟州島巫業者의 性別統計資料를 주어 濟州島에 男巫가 女巫보다 약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女巫가 많은 陸地の 경우와 判異하여 흥미를 느꼈고 뒤에 그런 差異가 濟州島와 陸地の 男女關係에 대한 文化的 差異와 關係할 것이라고 推論을 하게 되었다.²⁾

1960年代末과 1970年代初에 그동안 蓄積된 文獻資料와 若干의 現地調查資料를 통하여 筆者도 韓國民間의 精神病觀에 관한 考察³⁾을 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疾病觀一般을 다루게 되었다. 이 당시 玄容駿氏가 濟州道라는 雜誌에 記述한 「濟州島의 疾病觀」⁴⁾이 무척 흥미를 끌어 많은 示唆를 얻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甞담과 甞들임과 같은 濟州島巫俗에 特異한 病굿이 報告되어 陸地, 特히 中部地方과 다른 疾病觀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即, 中部地方을 中心으로 한 巫俗社會에는 대개 雜鬼의 憑依 또는 雜

2) Bou-Yong Rhi, Analytisch-psychologische Studie über das Weiblichen und das sogenannten Doppelgeschlecht im Schamanismus der sibirischen und der ostasiatischen Völker, 最新醫學, vol 11, No.12:1-7, 1968.

3) 李符永: 韓國民間의 精神病治療에 관한 研究—巫俗社會의 精神病治療—, 最新醫學, 15:191-213, 1972.

4) 玄容駿: 濟州島巫俗의 疾病觀, 제주도, 通卷 21 號: 106-117, 1965.

鬼의 攻擊으로 병이 생긴다는 觀念이 優勢하나 失魂(soul-loss)의 觀念은 疾病觀으로 發展하지 않고 있는데 反하여 濟州島에는 이것이 있고 그런 疾病觀에 立脚한 治療方法이 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또한 濟州島文化가 陸地와는 다른 側面을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事實을 알 수 있고, 몇 가지 心理學的 解釋을 試圖해 볼 수 있다.

그런가운데서도 흥미있던 것은 「칠성새남」이라는 病人데 玄容駿氏에 의하면 뱀을 죽인 뒤 죽은 뱀의 怨魂에 썩워서 뱀처럼 혀를 낼름거리고 몸에도 푸른 얼룩이 지는 病이라 하는데 이것 역시 陸地에서는 볼 수 없는 病이다. 우리나라에는 本來 動物憑依病, 例컨대 여우의 魂에 사로잡혀 여우 흉내를 내는 日本民間의 憑依病人〈狐쓰게〉(憑狐)와 같은 것이 極히 드물다고 보았는데 이런 報告를 接하니 「칠성새남」이라는 것이 진정한 意味의 文化連繫憑依症候群(Culture bound possession syndrome)이 아닌가 생각되어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으나 아직껏 實地例를 觀察할 機會를 얻지 못했다.

濟州島의 巫俗 역시 陸地의 巫俗과 상당히 다른 側面을 보인다. 玄容駿은 濟州島神房이 Ecstasy를 경험하지 않는다 하면서 濟州島巫覡의 職能⁵⁾을 紹介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들이 神意를 알아 듣고 굿의 參加者에게 그것을 通譯하는 仲介者의 役割을 하는 것은 시베리아 샤머니즘에서의 샤만의 特徵과 비슷하고 복을 神體로서 重要視하는 點이라든가 상당히 古態的인 面貌를 보여주고 있다. 濟州島의 神話內容 역시 本來의 神話보다 훨씬 豊富하고 그 스케일이 크고 古態的이다. 巨人說話라든가 宇宙創造神話의 흔적이 濟州島에 남아 있고 저승에 관한 이야기 또한 陸地에서 볼 수 없는 神話的 無慈悲性和 劇的 展開過程을 보인다. 濟州島는 마치 儒敎나 그밖의 高等宗教나 合理主義的 集團的 思考와 中央集權的 政治勢力의 洗禮를 덜 받은 채 그 固有의 民俗文化를 比

5) 玄容駿: 濟州島巫覡의 職能者로서의 性格, 金載元博士 回甲紀念論叢, 1969.

較的 自由롭게 伸長시켜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金寧蛇窟傳說에서 大蛇의 除治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傳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濟州島의 土着文化가 어느만큼 뿌리깊었던 것인가를 알 수 있다. 大蛇를 除治한 主人公이 그 功으로 어여쁜 女人과 結婚한다는 歸結은 民謠에는 있지만 傳說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怪物을 除治한 主人公 그 뒤에 그 怪物의 怨氣때문에 죽고 만다는 것은 그리 흔한 歸結이 아니다⁶⁾

그러나 現代의 濟州島人의 心性은 어떨까? 얼마 안되는 濟州島出身의 精神科患者나 그 家族을 통해서 보면 濟州島의 그러한 古態的인 民俗文化가 症狀이나 行動이나 혹은 그 性格에 어떤 影響을 끼쳤다고 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病의 種類, 그들이 屬한 社會文化的·經濟的 階層等的 差異가 여기서 어떤 役割을 할 것이나, 내가 본 患者들은 한결같이 禮儀바른 질은 儒敎의 色彩의 단정한 風貌와 家父長的 權威主義의 影響을 받은 사람들인 듯 했다. 무언가 大陸의 Ecstasy 氣質이 세찬 바람에 꺾여비린 듯한 印象이라고나 할까. 적은 數의 患者를 놓고 一般化시킬 수 없으나 그런 文化와 性格形成, 또는 性格變換의 問題도 앞으로 探究될 만한 課題라 할 것이다. 그러나 濟州島에서 開業을 하시는 精神科專門醫이야기로는 土着文化의 色彩가 患者의 症狀에 強하게 들어 있어 民俗文化를 理解하지 않고는 患者를 理解하기 어렵다고 한다. 濟州島의 民俗文化와 精神健康問題가 어떤 相互關聯을 가지며 그것이 陸地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究明하는 것도 앞으로의 중요한 課題이다.

濟州島는 解放以後 많은 變化를 입은 곳이다. 6.25 動亂時의 「大民族移動」의 結果, 서울피난민, 軍隊文化가 移轉했고 또 몇차례의 쓰라린 同族相殘의 경험을 거친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은 觀光韓國의 달

6) 崔常壽：韓國民間傳說集，通文館，서울，1958，pp.175-6.

러 箱子로 脚光을 받고 있고 新婚夫婦의 蜜月旅行地로 指定이 되다시피 되어 있다. 開發의 메아리가 높은 Hotel 를 짓고 日本人 觀光客, 그밖의 外國人들이 그곳에 와서 도박판이라도 굴리고 遊興業所라도 자꾸 늘리고 漢拏山 꼭대기까지 케이블 카를 만들고 그 위에 Hotel 이라도 지으면 濟州島를 지키던 돌하루방과 濟州島神話에 나오는 巨婆인 설문테 할망은 모두 그저 別製의 展示標本처럼 觀光客의 눈요기꺼리이며 돈벌이의 手段이 되고 말 것인가, 觀光文化와 商業主義文化가 濟州島文化를 어떻게 變貌시켜가며 濟州島人의 心性에 어떻게 影響을 주게 될 것인가. 이런 文化 輸入과 抵抗, 習俗의 文化適應上的 問題가 바야흐로 濟州島文化研究의 火急한 課題이기도 하다. 이것은 단지 現象學的 記述을 目的으로 한 研究라기보다 濟州島民俗이 現代物質文明의 세찬 波濤에 휘말려 沈沒해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研究라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濟州島가 陸地人의 그리움, 異國的情趣의 對象으로 언제까지나 文明의 洗禮에서 隔離된채 남아 있기를 바랄 수는 없다. 濟州島民俗의 消滅과 保存, 모두 時代的 變換과 더불어 그나름대로의 律動을 지닌채 展開될 것이고 넓은 意味의 精神醫學的研究는 文化精神醫學에서 深層心理에 이르기 까지 그러한 自然과 人間의 變換過程을 진지하게 追跡해 갈 따름이다.